



# 방일영 문화재단

제 47 호  
2022.12.31

www.bangfound.org

The Bang Il-young Foundation Newsletter

## 제29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에 조순자 가곡 명창

“오랜 세월 전해진 전통 가곡, 많은 사람이 듣게 할 것”



변용식 재단 이사장이 방일영국악상 제29회 수상자 조순자 가곡 명창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방일영국악상 제29회 수상자로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보유자인 조순자(78) 명창이 선정됐다.

지난 11월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조 명창은 상패와 상금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날 국악인 김성녀 씨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은 조 명창의 입장을 시작으로 역대 수상자-심사위원-내빈 소개, 변용식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한명희 심사위원장의 심사 경위 보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축사, 조 명창의 답사 순으로 이어졌다.

<4면에 계속>



#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교단을 지켜온 선생님

## ‘2022 올해의 스승상’ 7명 교사 시상



‘2022 올해의 스승상’의 수상자들. 왼쪽부터 이선화(경기 판교고), 가덕현(충남 태안여중), 신원배(전북 함열여고), 권용덕(대구 매천중), 이대열(충남 수덕초), 고영란(경기 상록초), 김상호(서울 한국우진학교)



우리 재단과 조선일보사, 교육부가 공동 제정·시상하는 ‘2022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이 12월 19일 조선일보사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7명의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20년을 맞은 올해의 스승상은 열정과 헌신으로 교단을 지켜온 교사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2년 만들어졌다. 올해 수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240명의 선생님이 이 상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교육부 장관 표창장, 상금 2000만 원이 주어진다.

환경 교육에 힘써 온 고영란 교사는 “매해 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도서관 살리기에 매진한 가덕현 교사는 “24년간 만났던 모든 학생에게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장애 학생들의 자립심을 일깨운 김상호 교사는 “장애 학생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따라와 줘서

고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와 학령인구 감소까지 가속화되면서 ‘백년대계의 향방’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선생님들의 노고와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수업의 혁신’이 필요하고,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심사위원장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변용식 재단 이사장,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모임인 ‘한울회’ 회원, 수상자들의 가족, 동료 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2022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공적

### 고영란 경기 상록초 교사

#### 초등 환경·생태교육에 힘써

환경·에너지 교육 확산에 공헌했다. 초등학생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환경일기장’ 교육과정을 개발했고, ‘미래를 걷는 아이들’ ‘쓰레기가 사라졌다’ 등 어린이 환경상식 교양서를 펴냈다. 학교에서는 자원 순환 동아리 활동을 지도해 학생들이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이끌었다.

### 가덕현 충남 태안여중 교사

#### 학교 도서관 살려 독서·글쓰기 교육

32년간 중·고교에서 독서·글쓰기와 문화 예술을 지도하며 인성 교육에 매진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한 농어촌 학교 5곳의 도서관을 정비했다. 방치되거나 낡은 자습실에 그쳤던 학교 도서관을 독서·글쓰기 활동과 멀티미디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작업을 주도했다.

### 권용덕 대구 매천중 교사

#### 음악 동아리로 협동심 키우고 학교 폭력 줄여

일탈 위기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꾸준한 상담으로 학교 폭력을 줄였다. 10년간 음악 교사로 근무하면서 합창·밴드·사물놀이·오케스트라 등 음악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이 조화와 협동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었다.

### 신배완 전북 함열여고 교사

#### 농촌 어린이에게 과학 교육 봉사

1999년부터 전북에서 ‘가족과학캠프’를 운영해 학생들이 과학 체험 활동을 하며 원리를 배우고 탐구력을 키우는 장을 만들었다. 매년 고교 과학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농촌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 교실’을 열어 과학 교육 봉사를 해오고 있다.

### 이선화 경기 판교고 교사

#### 학교 심리상담 ‘위클래스’ 정착에 공헌

2008년 학교 심리상담 서비스인 ‘위(Wee)클래스’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상담을 정착시키는 데 공헌했다. 경기도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를 그만두려던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썼다.

### 김상호 서울 한국우진학교 교사

#### 스포츠로 장애 극복에 힘써

27년 동안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이끌고 매주 산과 암벽을 오르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힘썼다. 비장애 학생과 체육 통합 수업을 열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다.

### 이대열 충남 수덕초 교사

#### IT·소프트웨어 교수학습법 개발 교육

농어촌 벽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7년간 IT·소프트웨어 관련 교수 학습법을 개발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벽지 학생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실천해 왔다.

 재단소식



수상자 조순재(오른쪽) 명창이 제자이자 아들인 신용호 가곡전수관 사무국장과 함께 '태평기' 를 부르고 있다.

<1면에서 계속> 가곡 분야의 외길을 60여 년간 걸어온 조 명창은 기존 여창(女唱) 가곡 15곡에 서른 곡을 추가해서 1998년 여창 가곡 전집 음반(6장)을 완성했고, 2006년에는 악보집 '여창 가곡 마흔 다섯 낚' 도 출간했다.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2006년에는 세계 최초 가곡전수관을 경남 창원에 건립했다.

조 명창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가곡은 종묘제례악·관소리 등에 이어서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변용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조 선생은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지방에서 60여 성상을 올곧게 가곡을 수호하시고 전승·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곡전수관을 통해 후학 양성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다”며 “실로 조 선생은 옛날 풍류를 즐기던 가객(歌客) 중 가장 뛰어난 선가(善歌)의 자세를 이어오셨다”고 했다.

뒤이은 축사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방송에 출연하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갈고닦은





역대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심사위원,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 변용식 재단 이사장이 자리했다.



명창의 소리는 득음을 넘어서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 명창은 수상 소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취약 종목인 가곡 분야를 선정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크다”며 “오랜 세월 전해진 전통 가곡을 많은 사람이 듣고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답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곡의 역사성을 잘 다듬어 후대에 본질대로 전하는 일에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인 정재국(18회), 안숙선(20회), 이춘희(21회), 이재숙(24회), 김일구(28회)

명인 명창과 심사위원인 한명희 이미지문화서원좌장, 윤미용 전 국립국악원장, 김정수 용인대 명예교수, 김영재 무형문화재 거문고산조 보유자,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이 참석했다. 내빈으로는 윤주영 전 문공부장관, 이종식 전 국회의원,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조연홍 전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김중채 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장, 박일훈 전 국립국악원장, 권두환 서울대 명예교수, 윤중강 음악평론가 등도 자리했다.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김민배 TV조선 대표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시상식을 축하했다.



## 재단 이사장에 변용식 전 조선일보 발행인 선임



변용식  
이사장

재단은 2월 11일 조선일보사 회의실에서 제43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변용식 전 조선일보 발행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변 이사장은 1975년 조선일보사에 수습기자 14기로 입사하여 워싱턴특파원, 경제부장과 사회부장, 사장실 실장, 편집국장, 편집인, 발행인, TV조선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 최병렬 전 재단 이사 별세



최병렬  
전 이사

최병렬 전 재단 이사가 지난 12월 2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최 전 이사는 조선일보사 편집국장을 거쳐 국회의원, 문화공보부장관, 노동부 장관, 서울시장, 한나라당 대표 등을 지냈다.

## 김도영 재단 이사, NPX프라이빗에쿼티 파트너로



김도영  
이사

서중회 14기 김도영 재단 이사가 지난 8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체투자운용사인 NPX프라이빗에쿼티로 자리를 옮겼다. 김 변호사는 “25년간 김앤장에서 기업 자문, 분쟁 처리 업무등 많은 일을 해왔는데 이젠 현장에서 직접 일해보고 싶었다”고 이직 이유를 밝혔다.

## 조연홍 전 이사장에 감사의 선물 전달



지난 3월 11일, 조선일보사 접견실에서 퇴임한 조연홍 전 재단 이사장에게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과 변용식 재단 이사장이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 그간의 노고를 위무했다.

조 전 이사장은 2007년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돼 15년간 재단을 이끌어왔다.

## 방일영장학생 보조장학금 · 방일영국악상 상금 인상

- 보조장학금 매월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 방일영국악상 상금 8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인상

재단은 2022년 제43회 정기이사회에서 목적 사업 중 장학금과 국악상 상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방일영장학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 보조 장학금을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

다. 이는 급등하는 물가 등 생활비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방일영국악상 상금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5년 만에 인상했다.

## 국립국악중 · 고에 장학기금 1억 원 추가 기부

재단은 12월 23일 국립국악중 · 고등학교에 어려운 환경의 국악 전공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기금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앞서 재단은 4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어 장학기금은 총 7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장학기금을 전달받은 모정미 학교장은 “국악을 전공하는 중 · 고생들을 배려하는 방일영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의 뜻을 살려 우리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국악인재를 키워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립국악중 · 고등학교 모정미 교장(왼쪽)과 재단 유광선 사무국장이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 재단 사무국 조선일보 광화문빌딩으로 이전

재단 사무국이 지난 4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5층에서 조선일보사 광화문빌딩 2층으로 옮겼다.



## 고 방일영 선생 ‘국악 컬렉션’ 60여 년 만에 공개



방일영 전 조선일보 고문이 생전에 녹음한 국악 릴 테이프 8개. 당대 명인·명창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녹음한 희귀 음원들이 담겨 있어서 향후 ‘국악계의 1차 자료’ 가 될 것으로 보인다.

### 60여 년 만에 공개되는 ‘방일영 국악 컬렉션’



**박초월 명창**  
‘심청가’  
‘유관순가’  
(첫 공개)



**임방울 명창**  
‘적벽가’  
‘수궁가’  
(고음반 재녹음)



**철현금 산조**  
(현존 최고 음원)

**장국심 명창**  
‘방아타령’ ‘한강수타령’ ‘박연폭포’ 등

재단 설립자인 고 방일영 전 조선일보 고문이 소장하고 있던 미공개 국악 테이프 자료들이 지난 3월, 60여 년 만에 빛을 보았다. 이 음원들은 1950~1960년대 방 고문이 국악 명인·명창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릴 테이프 등으로 직접 녹음한 것이다. 테이프 8개 분량으로 판소리와 민요, 가야금·철현금·대금 산조 등 성악과 기악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명창 박초월의 ‘심청가’와 창작 판소리 ‘유관순가’, 한국 최초의 철현금 산조 음원, 경기와 서도 소리 명창 장국심의 민요와 타령, 국창 임방울의 판소리 ‘수궁가’와 ‘적벽가’까지 광복 후 국악사에서 공란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채워줄 귀중한 자료들이 녹음되었다.

자료를 검토한 김현선 경기대 교수는 “민요 가창자를 비롯해 판소리 명창, 대금 명인 등 당대 예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노래하고 연주했던 광복 이후의 소중한 국악 자료들이 반세기가 넘어 서야 공개된 셈”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국악방송은 방 고문의 국악 컬렉션을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 제39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

##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 수상



수상자 이진영 논설위원(가운데)과 역대 수상자들이 함께했다.

우리 재단이 후원하는 제39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이 10월 1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려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된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상패와 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재단은 해마다 이 행사에 상금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다.

최은희여기자상은 근대 한국의 격동기에 여성 언론인이자 항일운동가로서 명성을 떨친 최은희 여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3년 제정됐다.

이진영 논설위원은 여성·문화·환경·복지·미디어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회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회 구조적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뤄왔다. 또한 ‘현장 칼럼’ ‘수요 인터뷰’를 통해 체험적 칼럼의 영역을 개척했다.



수상자인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김문순 최은희여기자상 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이 위원은 수상 소감에서 “앞으로도 자부심과 두려움을 갖고 조심스럽게, 치열하게 취재하고 쓰겠다”고 말했다.

## 제30회 임방울국악제 방일영상에 이소영 씨



대통령상 최잔디 씨



방일영상 이소영 씨

우리 재단이 협찬하는 제30회 임방울국악제(주최 광주광역시·특별후원 조선일보사) 결선이 10월 17일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회관에서 열려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에 소리꾼 최잔디(34) 씨가,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최우수상인 방일영상에는 이소영(39) 씨가 받았다.

임방울국악제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한을 소리로 달렸던 임방울(1905~1961) 명창의 예술혼을 기리는 국악 축제다.

명창부·일반부·학생부 총 12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시상하는 국내 최대 국악 경연 대회다.

방일영상을 수상한 이소영 씨는 서울국악예고

를 졸업한 뒤 중앙대 전통예술학부에서 국악을 전공했다. 고교 3학년 때인 2001년에는 판소리 ‘심청가’ 첫 완창 무대에도 도전했다. 조소녀·김차경 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이소영 씨는 “‘당신은 소리를 할 때 가장 멋있다’는 남편의 말에 용기를 다시 내어 10년 가까이 잊고 있었던 국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며 지난 4월 심청가 완창 발표회도 다시 열었다. 이번 임방울국악제는 완창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도전 무대로 그는 “진짜 소리꾼으로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임방울국악제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준 셈”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TV조선 '2021년 방송평가' 에서 종편 1위

TV조선이 '2021년 방송평가' 에서 종합편성 채널 1위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7개 방송사업자 37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방송평가' 를 11월 2일 의결해 발표했다.

TV조선은 이번 조사에서 500점을 얻어

JTBC(491점), 채널A(490점), MBN(464점) 을 제치고 종편 1위에 올랐다.

TV조선은 편성규정 준수, 심의규정 준수 및 어린이 프로그램 항목 등이 개선돼 지난 조사와 비교해 총점 26점이 상승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 제13기 탈북장학생 9명 선발

재단은 12월 1일 제13기 탈북대학생 9명을 방일영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은 경희대·고려대·국민대·동국대·서강대·숭실대·중앙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각 1명이다. 이로써 2010년부터 선발된 탈북장

학생은 모두 12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2학년 1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매월 생활 보조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 제50기 방일영장학생 16명 선발

재단은 11월 11일 제50기 방일영장학생 16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매월 소정의 생활 보조 장학금이 지급된다.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새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아래와 같다.



**김수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김승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김창현**  
(연세대 경영학과)



**박세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시은**  
(연세대 행정학과)



**박지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신서현**  
(고려대 경영학과)



**우종호**  
(서울대 인문계열)



**윤효정**  
(서울대 경영학과)



**이도현**  
(서울대 경영학과)



**이유진**  
(서울대 경영학과)



**주민정**  
(서울대 경제학부)



**차재영**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최서형**  
(서울대 인류학과)



**최은비**  
(고려대 행정학과)



**황현태**  
(고려대 통계학과)

## 2022년 방일영장학생 장학증서-졸업기념패 수여



2022년 방일영장학회 장학증서 및 졸업기념패 수여식이 지난 7월 3일 광화문 코리어나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7월 월례회를 겸했다.

수여식에는 모처럼 장학생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신입 학부 장학생 15명과 신입 탈북장학생 8명, 졸업 장학생 13명 등이 참석해 장학증서와 졸업기념패를 받았다.

변용식 재단 이사장은 수여를 마치고 격려사에서 신입 장학생들에게 “방일영장학금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어떤 끈도 달리지 않는 풀 스콜라십”이라며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서, 장차 사회에 나아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우리 장학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졸업 장학생에게는 “졸업 후 진로에 관해 무슨 궁금한 것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



중회 선배들에게 자문하면 선배들이 친절하게 응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여식을 마치고 유광선 사무국장으로 부터 앞으로의 주요 행사와 일정 등 공지 사항을 안내 받았으며, 식사를 마친 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강사로 초빙해 “스타트업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 2022년도 언론인 저술지원 대상자 30명 선정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5명

## 【 2022년 상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



**강대영**  
(전 KBS부사장)



**권세진**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차장)



**김세중**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객원교수)



**김세형**  
(매일경제 임원실 감사)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류중현**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박창섭**  
(뉴욕주립대 저널리즘교수)



**빙두완**  
(한미클럽 이사장)



**심영구**  
(SBS 경제부 차장)



**유광중**  
(중국인문연구소장)



**이혜민**  
(전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정윤성**  
(JTV전주방송 논설위원)



**조순정**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부교수)



**조인원**  
(조선영상비전  
멀티미디어영상부 부장)



**허완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재단은 전·현직 언론인과 언론학자가 대상인 2022년도 저술지원 대상자를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5명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각 7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1년 이내에 책을 내야 한다.

**[ 2022년 하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



**강병철**  
(서울신문 사회부 차장)



**김덕형**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만철**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 교수)



**박삼철**  
(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  
플리마켓 센터장)



**박석흥**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손진석**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대우)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 부국장)



**이권효**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동관**  
(매일신문 편집인)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사무소장)



**이은숙**  
(주식회사 실버톡 대표)



**이은운**  
(전 중앙일보 문화부장)



**이종승**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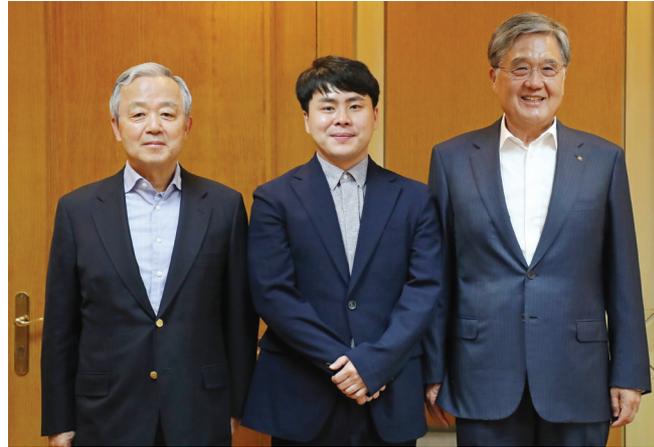
**이준영**  
(부산일보 선임기자)

# “북한 인권과 탈북자 사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탈북 법학전문대학원 1기 장학생 임철 씨

※편집자 주- 임철 씨는 방일영장학회 탈북장학생으로 변호사시험에 네 차례 낙방한 끝에 마지막 기회인 다섯 번째만인 올해 합격했습니다.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소망을 이룬 뒤 후배 탈북장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글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임철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은덕(아오지)에서 태어나 12살에 북한에서 탈출하여 15살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입니다. 친할아버지는 평양시 시안전국(현 정치보위부) 수사과장을 하시다 1960년대에 김일성 독재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반대파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아오지로 추방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북한에서 소위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온갖 탄압을 받아오다 1998년에 탈북하였습니다.



임철(가운데) 씨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조선일보사를 방문하여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오른쪽), 변용식 재단이사장(왼쪽)과의 환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울 백암고등학교) 2006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무렵,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을 적으면서 법조인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나는 무엇

을 할까’ 고민 끝에 무법한 북한체제를 바꾸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공부하고 북한땅에도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2년간의 준비 끝에 2014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우수한 학우들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학부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했던 법학이 매우 어려운 학문임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로스쿨을 졸업하였지만 변호사시험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동기들이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빨리 합격하리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제 자신이 시험에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어려운 국가고시에 대해 막연하게 합격하리라 기대했던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두 번, 세 번 불합격을 경험하면서 시험에 소질이 없는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한민국에서 너는 우리 집안의 시조’라고 하신 아버지의 격려와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회사원인 여동생은 결혼을 미루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로스쿨에서 인연을 맺은 신영무 회장님, 이여성 멘토님 등 많은 사회의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격려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결국 사전오기 끝에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학과 동시에 방일영문화재단과 인연

을 맺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이사장님과 국장님은 학기마다 늘 맛있는 불고기를 사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네들 어깨에는 소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졸업 후에도 늘 전화하셔서 안부를 물으셨고 시험에 낙방할 때마다 다음에는 꼭 될 거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응원이 없었다면 합격의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망했던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고닦은 법지식과 변호사의 자격을 통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북한 인권과 탈북자 사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과 제3국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하루 빨리 자유로운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앞장서서 수행하겠습니다.

탈북민 후배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노력하는 만큼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발을 맞추어 건강한 탈북민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1기 서기석 헌법재판관을 마치고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
- 1기 홍성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년 후 명예교수
- 4기 고정환 법무법인 법헌/특허법인 세신에서 미국변호사로 근무
- 11기 우병현 ‘아시아경제’ 미래전략위원장에서 미디어부문 대표이사로 선임
- 14기 서정민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장에서 감사실장으로 승진
- 17기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승진
- 17기 홍두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 19기 김상욱 울산 동구 부구청장으로 근무
- 21기 이상현 제주시에서 ‘법무사 이상현 사무소’ 개소
- 22기 박홍규 ‘풍천비철’ 전무로 승진
- 22기 김태정 현대중공업 전무(법무담당) 근무
- 24기 박종하 (주)한화 전략부문 인사전략실로 이동
- 25기 이치웅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 29기 강성호 UN 산업개발기구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무
- 29기 문수현 (주)한화 변호사에서 쿠팡(주) 변호사로 이직
- 30기 신옥영 대전지법에서 인천지법으로 이동
- 30기 이준열 UN 산하 세계식량계획 키르기스스탄 사무소 근무
- 39기 박시우 군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입사
- 40기 명경미 서울대 산학협력단 전문직으로 이직
- 43기 한병하 서울대 로스쿨 졸업 후 김앤장법률사무소 입사 예정
- 44기 김동현 고려대 로스쿨 졸업 후 의정부 지검에서 근무
- 45기 이시우 조기졸업 후 한국거래소 입사
- 46기 윤채현 조기졸업 후 한국거래소 입사

## 2023년 졸업(예정) 방일영장학생들 진로

- 42기 김정우 국제청 근무
- 43기 김영관 고려대 로스쿨 진학
- 43기 이주성 UBS증권 입사
- 44기 양가은 삼일회계법인 입사
- 44기 이찬석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진학
- 45기 도희진 서울대 로스쿨 진학
- 45기 진세희 삼일회계법인 입사
- 46기 김세연 에듀테크 법인 대표
- 47기 김단비 연세대 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진학
- 47기 윤세희 서울대 로스쿨 진학
- 47기 성지나 서울대 로스쿨 진학
- 47기 임혜지 서울대 로스쿨 진학



이수경 양

## 장학회 45기 이수경 양 행정고시 합격

연세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학회 45기 이수경 양이 2022년도 행시 재경직에 합격했다.



## 서중회비 납부 바랍니다

서중회원 여러분, 2023년도 연간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대상은 서중회원 중 졸업 후 5년차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 ♣ 회비는 연간 10만 원입니다.
- ♣ 보내실 통장은 신한은행 110-362-284657로 예금주는 총무인 '김영철'입니다.  
송금 시 성함과 기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 경조사 시 30만 원이 지급되오니 총무 김영철(010-3503-92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월\*

## 우리는 스타트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말씀해 주신 분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임정욱 실장님 강연은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 만에 전체 장학 회원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뜻있는 강연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현재 우리는 스타트업의 대폭발 시대에 살고 있다. 스타트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이 창출하는 고용 역시 함께 증가하여 한국경제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스타트업을 하는 불효 자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스타트업의 불모지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떻게 스타트업의 기회의 장이 된 것일까?

### 스타트업이란?

먼저 사람들이 스타트업과 자주 혼동하는 개념으로 창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셨다. 식당이나 상점, 나아가 경영컨설팅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아닌데, 이는 개개인의 노동력에 의존하며 성장 속도가 예측이 가능하므로 창업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반복적이며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해주셨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스

타트업은 반복과 확장을 통해 무한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하드웨어를 기반한 기술은 무한정 성장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이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러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반복과 확장을 통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스케일이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데, 마치 하키스틱과 같은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된다. 여기서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창업자의 중요한 자질이지만, 단계에 따라 적절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 역시 그에 상응하는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씀해주셨다.

### 스타트업의 천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축이 좋은 스타트업이 많이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조건임을 말씀해 주셨다.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왜 유독 실리콘밸리에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탄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 주제에 대한 강연을 이어가셨다. 주변에 위치한 스탠퍼드대학교, 온화한 날씨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고, 이들을 모두 묶어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표현하셨다.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3요소인 인재, 투자, 시장이 모두 근거리에 포집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결국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다. 지금의 한국에서 스타트업 붐이 나타나는 것은 이전부터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며, 앞으로



강연을 마친 후 장학생들은 맛있는 식사와 한담을 즐겼다.

좋은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5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한국은 스타트업이 살아가기 힘든 불모지로 느껴졌다고 하셨다. 스타트업을 차릴 만한 인재들은 공무원과 의사, 변호사 등만 목표로 하고 창업에는 소극적이며, 벤처캐피탈 역시 모험적인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강한 한국은 시장도 너무 작았다. 그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옥죄는 규제 역시 많아 스타트업의 성장이 어려웠다. 따라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셨다. 지난 8년간의 한국 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업부로 승격하였고, 벤처캐피탈의 모험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거듭해오며 현재의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또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소비를 주도하는 Z세대의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씀하셨다. 유료 구독 콘텐츠와 같이 선진국에서 유래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Z세대의 적극적인 소비행위가 선구적 서비스의 시차 없는 수입을 가능하게 했으며, 역으로 한국에서 성공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비즈니스 모델도 등

장했다. 이로 인해 한국에도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플랫폼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만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AI, 반도체 등 딥테크 위주의 스타트업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백억, 수천억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우선 많은 인재들이 창업을 하고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투자를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이 M&A나 IPO 등을 통해 성공적인 엑시트를 이루어내면 벤처캐피탈은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스타트업들이 좋은 선례가 되어 다시 벤처캐피탈이 재투자를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스타트업 시장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다.

이번 강연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스타트업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스타트업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먼저 업계를 들어가신 선배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창업을 진로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정리 김한성(서울대 자유전공학부2학년·장학회 49기)

11월\*

## 메타버스, 대항해시대의 인류

말씀해 주신분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협력하며 평화를 누리던 세계화 시대는 가고, 분쟁과 블록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팬데믹은 몇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던 변화를 몇 년으로 압축시켰다. 앞으로의 30년이 지난 30년과 같이 평화로우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변화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덮쳐오는 불확실성과 혼란으로부터 도망칠 곳을 찾았다. 탈현실화, 또 다른 현실, 메타버스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냈는가?

### 뇌가 만들어내는 현실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진정한 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대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현실은 뇌가 재해석해낸 것일 뿐이다. 뇌는 직접 현실을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감각을 통해 전해진 불완전

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보를 추가해 세상을 재해석한다. 착시현상은 '우리가 보는 것이 뇌로 인해 재해석된 것'이라는 사실은 대표적인 예시다.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은 시각뿐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해석은 가치관이다. 뇌는 '나'라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편 가르기를 한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나와 닮은 것이 더 소중하다. 이러한 편 가르기는 의도한 것이 아니다. 민족적 편 가르기, 인종적 편 가르기, 문화권 편 가르기는 어떠한 의도가 아니라 뇌가 세상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 VR과 다름없다. 우리는 지금껏 오감이라는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VR을 사용해왔기에 같은 현실을 공유할 수 있었고, 소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뇌가 아닌,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현실: 메타버스

우리는 현실의 대안으로 메타버스를 상상했다. 따라서 우리는 메타버스가 현실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담은 그 무엇이기를 바란다. 그럼 메타버스를 채울 많은 콘텐츠는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누가 그 방대한 일을 해낼 것인가?

그 주체는 바로 인공지능이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인식, 규칙을 만들어내 판단하고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DALL·E 2는 자연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그 자연어를 따라 그림을 창작해낸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강연을 마친 후 장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위험한 점은 그 생산성이다. DALL·E 2는 기계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한계 비용이 0인 콘텐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DALL·E 2는 AI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콘텐츠다. 기업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관리할 때는 추가 비용이 존재했고, 무한정 많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AI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관리하게 되면 추가 비용 없이 천만 명이 쓸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다.

### 메타버스로 변화하는 세상

우리는 메타버스가 단순한 VR,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기껏해야 게임이나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과거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한다. 메타버스는 세 번째 인터넷이다. 아날로그 현실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Desktop Internet이 나오면서부터 몸과 경험의 분리가 가능해졌다. 책상 앞에 앉아 지구 반대편의 운동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나온 Mobile Internet은 우리가 책상을 떠

날 수 있게 함으로써 몸마저 자유롭게 했다. 이제 세 번째 인터넷인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돌려줄 자유가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다. embodied Internet. 보는 것뿐 아니라 공간을 포함한 경험이 가능해질 것이다.

메타버스가 아무리 몸이 포함된 경험을 선사한다지만, 우리의 몸 자체는 아날로그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뇌의 신경세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뇌를 주변 환경에 최적화시키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한다. 결정적 시기는 어릴 때 오며, 따라서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이것이다. 지금의  $z$ ,  $\alpha$ ,  $\beta$  세대는 결정적 시기에 디지털 현실을 먼저 접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고향은 디지털 현실이고 늘 디지털 현실을 찾을 것이다.

과거와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아직은 생소하고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배척, 혹은 어설픈 모방은 절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강지유**(고려대 경제학과 2학년 · 장학회 49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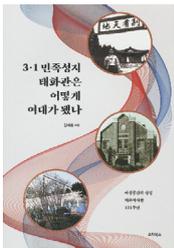
재단지원 신간안내

new books



**미디어 권력 이동(탁재택 지음)**

미디어와 정치-자본 권력 간의 구조적 관계에 착안, 과거 및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미디어 정책 이슈들을 점검하고 미래 미디어산업 정책 논의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점을 진단한다. 한울, 3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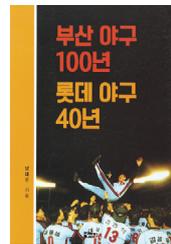


**3·1 민족성지 태화관은 어떻게 여대가 됐나(김태은 지음)**

여성 공간의 상징인 태화여자관이 100주년을 넘겼다. 3·1운동이 한국 여성의 삶과 여성사에 미친 절대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던 태화관을 재조명하여 한국 여성운동의 초석이 어떻게 다져졌는지를 살핀다. 스타북스, 20,000원

**부산 야구 100년 롯데 야구 40년(남태우 지음)**

부산 야구 100년의 해를 맞아 40년을 맞은 프로야구 롯데 야구사, 부산 야구사를 정리한다. 숨겨진 부산 야구의 민낯을 드러내 야구 도시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고 미래를 모색한다. 해성, 2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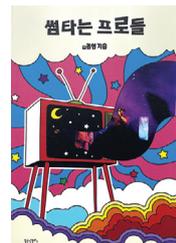


**조국의 시간, 윤석열의 시간(백대우 지음)**

20대 대선 등을 취재하며 보고 느낀 점과 정치 미래에 대한 조언을 풍부하게 담았다.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지역감정, 무분별한 언어 사용 등 오래된 정치적 과제들에 대한 고민을 풀어냈다. 글마당, 17,000원

**썸타는 프로들(김종영 지음)**

TV조선이 제작한 미스트롯과 미스트롯이 뜨자 여타 방송의 유사 프로가 난립하여 일부 시청자들은 염증을 느낄 정도. 인기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따라 하는 이런 풍조가 왜 만연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해결책은 무언지 등을 살핀다. 꿈공장플러스, 11,500원



재단지원 신간안내



**기묘사화, 피의 흔적(임도혁 지음)**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거나 유배에 처해진 선비들, 성리학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던 기묘명현이 남긴 기록과 흔적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바, 이를 추적해 펼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 안내서. 이화, 19,000원



**리처드 워트컴(오상준 지음)**

6·25전쟁 당시 워트컴 부산 미군 군수기지사령관은 전쟁이 끝난 뒤 군법을 어기고 이재민에게 군수물자를 나눠줘 청문회에 불려가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부산대 부지 조성, 메리놀 병원 신축 등 한국 재건에 앞장선 인물. 그의 삶을 재조명해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부각. 호밀밭, 15,800원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오정환 지음)**

조선 전제 왕정의 타파, 일본의 제국주의에 항거,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 등 각 투쟁 단계에서 이승만은 중심 역할을 해왔다. 숭한 시대적 역경에 맞서 나갔던 이승만의 삶을 사료를 기초로 풀어가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정리했다. 타임라인, 29,000원



**청춘, 여름, 꿈의 무대 고시엔(한성윤 지음)**

야구 강국 일본의 프로야구 뿌리인 고교야구 고시엔의 야구 현장 취재 및 야구 해설을 하며 쌓은 일본 야구 및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뒷걸음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교야구 및 한국 야구의 나갈 바를 제시한다. 싱각, 18,000원

**신문사 사육 터를 찾아 3/ 해방공간 서울을 누비다(오인환 지음)**

해방공간 기간에 서울서 발행된 모든 신문의 발행소가 어딘지를 당시의 지적도와 2021년 현재의 지적도상에서 확인해보고 당시 건물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현재 그들 신문 발행소가 있었던 곳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등을 정리했다. 한국학술정보, 22,000원



new books

재단지원 신간안내

**일본인과 징비록(이종각 지음)**

일본에서 징비록이 스테디셀러가 된 기현상은 조선 침략이 왜 실패했나를 알려는 일본인들의 지적 욕구가 배경.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한국인은 징비록의 함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한스북스, 20,000원



**장수경제가 온다(이위재 · 남민우 · 배정원 지음)**

65세 이상 한국 고령인구의 비중은 2045년 세계 1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장수시대를 맞아 세계적 기업들이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한국 기업들에게 자극을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스컨텐츠, 14,000원

**식물은 어떻게 작물이 되었나(강석기 지음)**

게놈 해독 기술로 벼의 게놈이 해독된 이래 수십 가지 농작물의 게놈이 해독됐다. 필자는 야생식물이 어떻게 작물이 되었고 상품성이 높은 산물로 개량됐는지 살피고, 이 게놈 정보가 앞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MID, 18,000원



**사무라이와 양키의 퀴텀점프(이하원 지음)**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과 도쿄의 양국 특파원을 지내면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현장에서 비교하며 취재한 필자가 미일동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박영사, 18,000원

**앵커맨의 삶과 꿈(봉두완 지음)**

4.19, 5.16을 거치는 동안 격랑의 시기에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앵커맨으로서 보고 느끼고 말한 이야기와 숨겨진 에피소드 등을 저자의 미수를 맞아 펴내고 그간의 언론계 생활을 정리해 후배들에게 알린다. 나남출판, 32,000원



books  
new

## 재단지원 신간안내



### 조선의 대기자, 연암(강석훈 지음)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그의 소설, 산문 등을 통해 현대적 관점의 저널리즘 정신으로 대기자로 활약한 족적을 분석하여 연암을 조선의 원조 대기자로 자리매김하고, 시대를 초월해 그의 기자정신을 현재에 투영한다. 니케북스, 24,000원



### 디지털 트렌드 2023(김지혜 지음)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뛰어넘을 10가지 디지털 전략을 소개하여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 그리고 디지털 트렌드 섭렵을 통해 2023년을 대비할 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책들의 정원, 17,500원

### 왜 뒤흔을까 'K-크리에이티브' 끌리는 것들의 비밀(이은주, 김윤미 공저)

세계가 주목하는 K-크리에이티브를 창작자, 채널-유통, 소비자라는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인기 콘텐츠가 모은 사회 문화적 배경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의 변화상과 향후 트렌드를 전망한다. 혜화동, 16,800원



### 토론의 힘, 생각의 격(허원순 지음)

복잡한 현대사회의 경제 현상에 대한 논쟁적 해설서. 학생, 직장인까지 쉽게 논란의 시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고 유도형 교양서. 재정문제부터 현실에서 접하는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대한 접근법을 안내한다. 한국경제신문, 20,000원

### 우리는 도전을 즐겼나(조상범 외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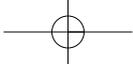
종편 영상기자들은 1인 중계 시스템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중. 지난 10여 년 넘게 8인의 TV조선 영상책임자들이 현장에서 몸으로 느낀 경험, 도전과 실패, 종편 10년의 발자취를 영상이 아닌 글로써 담아냈다. 생각나눔, 15,000원



### 호준석 앵커의 원초적 질문(호준석 지음)

YTN에서 '호준석의 뉴스인'이라는 2시간 생방송 뉴스를 통해 10년간 정치인, 관료, 대중문화인, 석학들을 인터뷰한 경험을 토대로 TV 인터뷰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미학사, 15,000원

new books



방일영문화재단

